



변화시대의 한 거인

鄭京泳



(鄭京泳)

육군사관학교에서 국제군계를 전공하고 33기로 졸업, 임관하였으며, 미국 지휘관 대학에서 군사학 석사학위,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학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Systems Management)에서 조직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 메릴랜드대학원(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Graduate School of Government and Politics)에서 안보정책학박사학위를 수료하였다.

연합사 - 아전군사령부 - 군단급 계대에서 작전계획장 교외 육군참모총장실 군사외교장교, 육군본부 무관연락실장 등의 연합작전 및 군사외교분야의 참모보직과 포대장 - 대대장 등의 지휘관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최동북단 전선에서 연대장으로 복무중이다.

그 동안의 연구업적으로는 『민족분단의 원인에 서서』, 『외국투입의 길』 저서 외에 『한미 연합전술훈련의 발전방향』, 『자율성 교휘를 통한 군복무 위약 혁신방안』을 비롯하여 『An Analysis of ROK-US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Security Implication of Korean Economic Crisis in North East Asia』, 『Security Implication of the ROK's Government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North East Asia』 등의 논문과 『교뇌하는 장교상』, 『미타군의 모습과 장교단의 행보』 등의 에세이가 있다.